

목양칼럼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없다 song을 아십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민 20:6下)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둘러보며
 이곳에 다섯 가지나 없다고 외칩니다.

영국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없는 한 가지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환경”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마음”에 꼭 있어야 할 “감사”가 아닐까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V. Son/RM (917)940-0596 천위지/CM (347)965-0343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비/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어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소유영/행정 (917)318-7030 최진식/ (646)887-7419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347)804-5366
차평화/고등부.EEIP(703)819-8785 손요한/중국어교육부 (646)789-1118 이오스틴/인턴 전진영/인턴			
직원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나윤주	반주 / 최미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터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VER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11월 25일
 제 44-47호

주일예배 (1,3부)

추수감사 주일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587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장봉석 장로 3부 / 고국환 장로
주일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589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계시록 7:12	사회자
찬양 CHOIR	감사하세 추수 감사절 찬송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아멘 감사 아멘	김성국 목사
추수감사절 헌금 THANKSGIVING OFFERING & HYMN		1부/ 최진식, 3부/ 소철화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91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주후 2018년 11월 25일

주일예배 (2,4부) 추수감사 주일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황주현 장로 4부 / 송동울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주일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589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계시록 7:12	사회자
찬양 CHOIR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아멘 감사 아멘	김성국 목사
추수감사헌금 THANKSGIVING OFFERING		2부/ 김유경, 4부/ 강혜영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사회자
* 찬송 HYMN	591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새가족 환영회

5과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선교회 총회

12/9(주)

사랑의 바구니 제작

12/13(목) 오전 10:00

수요 기도 예배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오후 8:00 (11/28/18) 사회: 손요한 전도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마가복음 4:35-41

말씀 손요한 전도사

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찬송 184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11월 감사의 달 - 여호와께 감사하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1/25(주) 추수감사 주일	11/28(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12/5(수) 지도원 성경 공부, 제직회
12/9(주) 선교회 월례회 및 총회	12/13(목) 사랑의 바구니	12/14(금) 구역 예배
12/16(주) 성탄 축하 찬양제	12/23(주) 성탄 주일	12/25(화) 성탄 축하 예배

알림

- 추수 감사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한 감사헌금을 각자가 제단 앞에 나와서 봉헌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성 헌금으로 드리시거나 다음 주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300,000.00
- 2018년 가을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자 (총 58명)**
 학 습: 김학재 이규대 황철석 최 용 김경민 彭金 林秀娟 刘宏康 周甜 陈雁清 李妍 张新超然 江万金 郑瑜 刘羽 刘灵芝 李倩惠 郑建龙 (18명)
 유아세례: 채권호 이주희 배하영 이다솜 이예준 채요한 채한별 김유민 박승원 Alina Zheng Israel Noah(11명)
 입 교: 최경란 이민규 김노아 이소은 김준열 김호중 김민중 (7명)
 세 례: 김청옥 이명희 최 호 김은혜 류 미 최예진 양은봉 李忠国 陈小明 陈明建 游佳敏 欧方锦 郭侨娟 冯晓民 陈飞霞 钟玉文 闫冬麟 郭秀荣 潘佳敏 袁敏 王媛 江涛 (22명)
- 오늘 QBC**에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오후 2:15~3:15
- 연말 당회 기도회** 2018년을 마감하고 2019년을 준비하는 연말 당회 기도회가 12/2(주)부터 12/4(화)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부서 및 선교회 회계장부를 당회 서기(정길표 장로)에게 11/28(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축하 찬양제**를 위한 연합 찬양대 연습이 12/2(주) 오후 3:30부터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찬양대원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2/1(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60대 선교회 (다음주: 50대 선교회)
- 가족기념 장학기금** 김인환 집사, 김경구 권사, 김주희 권사

새가족

김은주 (청년선교 2Y2) 김기민 (창년선교 3Y1) 이명자 (다비다 3BS2, 김선희 - 청년선교) 황윤주 (청년대학 1Y1)

교우소식

소 천 유숙자 권사 (양봉옥 권사 모친 1F9)께서 11/19(월) 소천받으시어 은혜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김홍원 집사 (김종희 권사 3RW)께서 11/22(목) 소천받으시어 은혜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교역자동정

임 명 (12/2부터) 이소영 전도사 (새가족/ 전임), 전진영 전도사 (유치부), 이오스틴 전도사 (초등부)
사 임 김재형 목사 오인수 목사 황혜옥 전도사

금식기도

월 / 황현희 고은비 이국향
수 / 양성화 박종범 이혜연
금 / 남형욱 김유진 최재영

주 / 김유진 정진웅 김아란
화 / 김미연 김아람 박새암
목 / 윤혜진 마지은 김도환
토 / 조성순 조제인 설희숙 이일향 조영숙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2부	오전 10:30		유아부		유아부실(2층)
	3부	오후 12:15		유치부		유치부실(2층)
	4부	오후 02:00		유년부		유년부실(4층)
	QBC	오후 02:15		초등부		초등부실(3층)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토요모임 오전 9:0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7:00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출석

1부 예배	283	러시아어 예배	56	영어부	41	중등부	58
2부 예배	378	청년 선교부	86	유아부	24	고등부	55
3부 예배	293	주일저녁	268	유치부	33	청년 대학부	33
4부 예배	161	새벽 예배	834	중국어 교육부	25	교회 학교 예배	423
영어 예배	171	수요 기도 예배	96	유년부	84	주일 낮 장년 예배	1789
중국어 예배	361	새가족 환영회	18	초등부	70	주일 낮 총계	2212

11월 봉사위원(12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정성호 장로(이무근 장로)

현신기도	김용생 장로	홍승룡 장로	정성호 장로	차상남 장로
책임권사	최용숙 권사 (차동미 권사)	강옥순 권사 (박경우 권사)	송경순 권사 (전광인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동순	이정훈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장지숙 정민영 허민정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김미권 전용력 전인자 송명남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박석미 한원희 허민정 심화숙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리아/바울(교포부/교포부) 주일식사: 교포부(다음주: 청장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렙(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금주의 가정예배

2018년 11월 넷째 주

제 69 문 :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답 :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 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나의 영혼의 더러움, 즉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488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20:11-18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눈물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눈물대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늘 변함없는 소망을 품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298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20:19-23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으십니다. 손과 발의 못 자국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셨다는 증거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여야 할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손과 발의 못 자국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545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20:24-29

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의심합니다.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 찬송가 40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20: 30-31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려주는 표적들은 너무나도 많으나, 우리는 그 표적들을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목적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진짜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피난처이며 안식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543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21:1-14

낙심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 보십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밤새워 일했지만 빈 손으로 돌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다.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지시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 찬송가 455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한복음 21:15-25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도, 우리도 그 대답에 “아니요”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네”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을 볼 때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